

광주시, 올해 청소년자율공간 조성사업 본격 추진

자치구·학교 등 대상 사업설명회
신규 3개소 공모...내년까지 10곳
유희공간 활용 소규모 전용 공간
작년 임동·비아 개관 청소년 호응

광주시가 지역 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소년자율공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12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자치구, 공공기관, 학교, 청소년시설·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청소년자율

공간 확충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도 신규 3개소 청소년자율공간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앞서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대상으로, 공모 선정기준 및 방법을 공유하고 조성·운영과정의 이해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 △공모사업 참여 조건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대상지 선정방법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고 의견

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5월, 7월 개관해 운영 중인 '임동 재미나Zip'과 '비아청소년자율공간'의 공간 조성과 운영 사례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공유했다. 이 청소년자율공간들은 노래부스, 네컷사진, 스티디카페 등 청소년들이 쉬고 공부하고 게임까지 한 곳에서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청소년자율공간 사업은 민선 8기 광주

시의 공약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문화·오락 체험과 학습·휴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해 생활권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시장 주재 대화 창구인 '월요대화'에서 청소년 건의로 사업이 본격화돼 더욱 의미있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개소(북구 임동, 광산구 비아동)를 개관해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개소(서구 풍암동, 남구 진월동)를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개소의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들이 휴식하고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자율공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겠다"며 "자치구·시교육청을 포함한 관계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 620명 선정

100만원 저축시 100만원 지원
"경제적 자립·금융 역량 강화"

광주시는 지난 10일 공개 추첨을 통해 일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제10기 참여자 620명을 선정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청년 4901명이 신청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13(일+삶)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금융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13(일+삶)통장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830명의 청년들을 지원했다. 공개 추첨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됐다. 또 모든 과정을 광주청년센터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jyouthcenter>)에서 생중계함으로써 공정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선정자 명단은 광주시 누리집 고사·공고,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 청년13(일+삶)통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

정된 청년들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사업 참여자들은 약정서 작성 후 2월부터 1회차 10만원 납입을 시작하게 된다. 11월까지 10개월간 저축하면 광주시에 제공되는 추가 적립금 1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만기금을 12월에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저축에 대한 기본교육과 맞춤형 재무 상담·조언 등도 받을 수 있다. 권윤숙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청년13(일+삶)통장' 신청자가운데 남성 비율은 25%, 여성은 75%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주 연령대로는 25~29세가 37%를 차지했다. 근로 형태는 상용직 74%,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임시직 22%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맘편한 패키지' 지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의자·직장생활꾸러미 등 제공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맘편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펼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맘편한 패키지'는 지역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임산부 맘편한 의자, 직장생활꾸러미를 지원하고, 임산부 모·부성보호 관련 무료 노무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임산부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임산부 맘편한 의자'는 신청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전까지 무료 대여하며 업체에서 설치부터 수거까지 관리해 준다. 임산부 체형에 맞춰 등판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180도까지 뒤로 젖힐 수 있어서 간이침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휴게공간이 없는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임산부 직장맘에게 인기 있는 지원품이다. '맘편한 직장생활꾸러미'는 임신기간 직장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임산부 맞춤 물품으로 꾸려졌다. 해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품을 변경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산부 직장맘들이 추천한 압박스타킹을 추가해 총 70개의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임산부 근로조건 개선 및 출산·육아 휴직 관련 상담을 센터노무사가 전화나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맘편한 패키지 지원 대상은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기업·기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광주지역 기업·기관이다.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광주사업장의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17일 오후 1시부터 이메일(leehr0428@korea.kr)로 신청서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www.gwangju.go.kr/woma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92)으로 하면 된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임산부 직장맘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서구와 충남 부여군 우호교류 맞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왼쪽에서 네번째)는 12일 양 지자체 우호교류 협약에 앞서 광주 서구의 '천원국시' 매장을 방문해 5-18 주먹밥을 만들며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개발공사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2689세대 규모 생태친화도시 조성

전남개발공사는 12일 전남도로로부터 담양보춘지구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7년 12월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신청을 시작으로 3년 4개월만인 올해 2월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이다.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민

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담양군 고서면 보춘리 일원 72만 1521㎡에 268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사업은 동광주 생활권과 약 5km 거리에 위치해 호남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제2순환도로 등과의 접근이 용이해 광역·지역간 교통체계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왕빛나무 가로수길 △이색 테마형 타운하우스 △공원 및 보춘천을 따라 걷는 순환형 프롬나드 조성 △자연속 보춘 Forest 가족공원 조성 등 4-REST(자유·소통·행복·여유)을 담은 '푸

르고 활기찬 생태친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올해 2월 사업 시행자 지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에 들어가며 연내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한 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금번 개발계획 승인을 통해 광주근교권 중소규모 신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주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설계를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명품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확대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사과·배·단감·뽕은감 등 과수 4종
"모든 자연재해 피해 보장 확대"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경영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과수 4종의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언피해(동상해)와 햇볕 탕(일소)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

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수 4종의 보장방식이 변경돼 주목된다. 보장방식은 기존에 열매를 숙아내는 적과 전 모든 자연재해 보장, 적과 후 특정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수확기까지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도록 확대됐다.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보험료율은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9개에서 15개로 세분화했

다. 사과, 배의 경우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설치시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농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농업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적극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